입문수기

마지막 회 신천신지(新天新地) 찾아가는 길

은혜를 간직하고 저축하려면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다

나는 정도령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받은 은혜 중 몇 가지만 적어보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았다

어느 날 밤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불덩어리가 되어 깜짝 놀라 깨어났다. 배가 막 후끈후끈 뜨거워지는 것이었다. 그 다음날도 전날과 똑같이 잠자다가 배가 뜨거워져서 깨어났다. 이날은 어제보다 더욱 배가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 이틀을 이렇게 배가 뜨거워져서 잠을 깨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다음날에는 잠자는 것이 무서워졌다. 그래도 안 잘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날도 잠이 들었는데 또 배가 뜨거워지는데 그 전날보다 더 뜨거워지는 것이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 제단에 가서 우리 식구들에게 물어보았다. 식구들은 "당신 불성신을 받은 것이야. 하나님께 감사해"라고 말을 해줬다. 불성신을 받은 후 4일째 되는 날부터는 잠을 깨지 않고 밤새 잘 자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 성신, 생수 성신, 그리고 이슬 성신 세 가지가 있다. 그 중 불성신은 죄를 태우는 은혜이다. 불성신을 받은 후 어느 날 예배를 보는 중에 종이 타는 냄새가 코 끝에서 진동하였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를 태울 때에는 종이 타는 냄새 또는 머리카락 타는 냄새처럼 고약한 냄새가 난다. 당시에는 죄를 태우는 냄새를 많이 맡을 수 있었다. 하루는 어떤 식구의 집을 심방하였는데 어찌나 종이 타는 냄새가 나든지 합선이 되었나보다 하여 두꺼비집을 내렸는데도 계속 종이 타는 냄새가 나서 불성신을 받은 것을 안 경우도 있었다.

그 다음의 하나님의 은혜는 향취은혜이다. 향취은혜는 이슬성신이 내릴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나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제단에 오면 콧속으로 향취가 진하게 들어오는 경험을 많이 하였다.

한번은 이런 적이 있었다. 정도령님 사무실에서 20여명이 모여 앉아 정도령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정도령님께서 "너희 중에 가장 이기지 못하는 것 있으면 말해봐" 하셨는데 아무도 답하는 분이 없어서 내가 손을 들고 "저는 정욕을 못 이기겠습니다"라고 하니 정도령님께서 내 앞에 서시는데 바케스로 물을 붓듯이 머리부터 시원한 생수를 부어주셨다. 그 뒤 정욕이 완전히 사라지고 한 달 이상 의인의 몸으로 변화된 적이 있다. 정도령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의인 만드는 것 식은 죽 먹기라는 것을 실감하였다.

한 달 이상 의인의 몸으로 변화 한 적이 있다

나는 버스를 타면 항상 맨 앞좌석에 앉는다. 가로등과 헤드라이트 불빛이 정도령님 얼굴로 보이니까 앞에 앉는 것이다. 어느 날 직장일을 끝내고 퇴근하는데 머리가 뻐개지는 것처럼 아팠다. 집에 도착하니 갑자기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흘러나왔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로구나 하고 생각했다. 성경에 천국은 마음속에 있다고 적혀 있지만 말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기쁨으로 가득하여 방문을 열고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베개로 머리통을 치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면서 순간적으로 손이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어떤 강한 힘이 내 손을 꽉 누르며 성질을 못 부리게 하는 것이었다. 정도령님은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권능을 내게 보여주신 것이다.

나는 정도령님의 말씀에 의해 인쇄소를 운영했다

정도령님께서 "야, 삼천만원 줄테니 인쇄소 경영해봐"라고 갑자기 말씀하셨다. 나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다가, 6개월 동안 마음의 준비도 하면서 인쇄소 경영에 대해 생각했다가, 정도령님께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돈을 주시기에 무궁화인쇄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인쇄소를 경영하면서 제단일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고로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오히려 제단에서 인쇄소 운영비를 타다가 썼다.

영생의 은혜(감로 이슬)가 분홍색으로 내렸다(사진 우측)

어느 날 회사에 출근해 작업 준비를 바쁘게 하는데 정도령님께로부터 전화가 왔다. 정도령님은 밑도 끝도 없이 "신불선 장로, 빨리 들어와" 하시기에 곧바로 답변을 못하고 머뭇거렸다. 정도령님께서 밀실에서 연단 받을 때에 즉각 "네"하고 답변하셨다는데 나는 왜 그런지 답변을 즉각 못하였던 것이다. 전화를 끊고 나니 약간 후회가 밀려왔다. 그길로 일단 제단에 가서 정도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를 본 정도령님은 "왔냐" 그러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이었다. 그때 내가 이긴자가 될 수 있었는데 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도령님은 분신으로 역사 하신다

정도령님은 분신의 역사를 하고 우리 식구들에게 은혜를 주어 공기를 맑혀 주시기도 한다. 정도령님이 분신의 역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을지로 대한극장 앞을 지나는데 '일이 바쁜데 매일 제단에 어떻게 다녀'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정도령님이 나타나서 내 멱살을 꽉 잡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마음을 고쳐먹고 그 길로 전철 타고 역곡 제단에 왔다. 그때 나를 보시고 정도령님이 빙긋 웃으셨다.

또한 부산에서 국조숭봉국민회의 행사가 있어 기차를 타고 우리 식구들이 가게 되었는데 우리 식구들이 많이 탄 객실과 우리 식구들이 거의 안 탄 객실의 공기가 전혀 달랐다. 나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혼자 다른 객실에 앉아 계셔서 그 장로님이 잘 계시나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 식구들이 많이 탄 객실은 밝고 환했고, 거의 안 탄 객실은 공기가 어둡고 탁했다. 정도령님이 우리 식구 한 명과 안 믿는 사람 100명과 안 바꾼다고 한 말씀이 실감이 났다.

정도령님과 같이 예배를 보면 찬송할 때 내 가슴 속에 있는 공기가 모두 빠져나와 정도령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그러면 은혜 창파 가운데 모든 죄가 소멸되고 한없는 기쁨이 몰려오게 된다.

정도령님의 능력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다. 내가 받은 은혜가 더 많지만 이 정도만 말하였다.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도 정도령님이 옥중에 들어가 계실 때 실망과 낙담이 되어 제단을 안 나갔던 적이 있다. 사회생활하면서 정도령님 말씀을 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이단이라는 대답뿐이라 많이 실망했었다.

그러다가 이정희 장로님이 나와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 장로님을 통하여 제단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정도령님이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는데 그전에 받았던 은혜가 그리워 다시 제단을 방문해 정도령님께 인사를 드리니 "너, 누구냐?" 하시는데 김혜선 권사님이 "신불선이에요" 답변을 대신 해 주었다.

그날부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더 열심히 주님 말씀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갔다.

은혜를 간직하려면 전도를 하라

나는 우리 식구들 볼 때 안타까운 점이 있다.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 같다. 정도령님께 당시 내가 받은 천국의 맛이 지금도 가슴속에 남아 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꾸 은혜를 까먹어서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은혜를 저축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

은혜 생활을 하다보면 제단에 오기 싫은 날도 있다. 마귀에게 잔뜩 씌었기 때문에 제단에 오기 싫은 것이다. 그때 다시 전도하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린다. 은혜를 저축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전도하는 것이 은혜를 간직하는 법이다. 이걸 몰라서 그 많은 식구들이 마귀의 밥이 되었던 것이다. 은혜를 간직하려면 전도를 하라.

내 나이 벌써 72세가 되었다. 세상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너는 왜 늙지 않는 것 같다" "동안이다"는 말을 듣는다. 전화를 받는 사람들도 젊은 사람 목소리 같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난 더욱 신바람이 난다.

이런 생활을 매일 매일 반복하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신바람이 나서 더욱 전도에 매진하게 되었다. 승리제단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한 번 와서 알아보시고 은혜의 맛을 보시기 바란다.

여러분들! 이 글을 하나님 입장에서 읽어주세요. 승리제단은 진짜 젊어지는 곳입니다. 한번 방문해서 확인해 보세요.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이 이루어지는 승리제단에 꼭 오셔서 불로장생하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면서 이 간증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불선 장로/본부제단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기준치 미달의 아주 작은 방사능도 섭취하면 100만배로 불어난다

방사능을 우리 몸에서 제거하려면 식품을 식초에 30분 담갔다가 조리를 하며 식사후 식초를 마시고, 된장, 케일, 클로렐라, 시금치 등의 음식을 섭취해야한다

우리 주변환경 방사능 노출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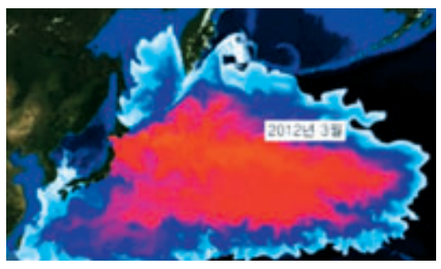
아래 사진 자료는 독일 Geomar에서 발표한 자료로써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물질인 세슘 137의 장기간 확산 경로를 시뮬레이션으로 제작한 것이다. (자료 사진은 후쿠시마원전 사고 후 1년이 지난 2012년 3월의 해양의 오염도와 2017년에는 우리나라도 전역에 오염이 된 시뮬레이션)

체르노빌 사고가 난 지 30년이 가까이 되는데 방사능의 피해는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질 않는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땅에서 자라는 버섯과 딸기 등 농산물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은 영락없이 방사능 관련 질병을 앓게 된다. 신체가 기형이 되거나 심장에 구멍이 생기거나 갑상선에 종양이 생긴다.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정신에도 영향을 미쳐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데 그런 아이들도 수두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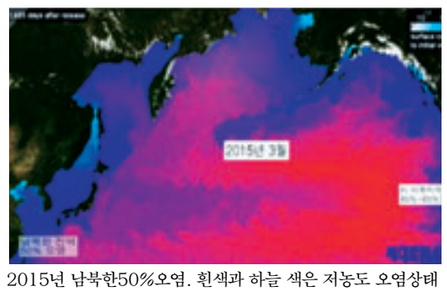
체르노빌 사고의 11배 되는 방사능이 방출된 후쿠시마 사고는 체르노빌보다 더한 비극을 일본과 한국과 전세계에 안겨줄 것이다.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중 후쿠시마 사고 이후 예전에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돌연사가 젊은 층에서 갑자기 증가했다.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은 심장이상이다. 심장이 어떤 이유로 상당히 망가진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멈춰선다면 바로 돌연사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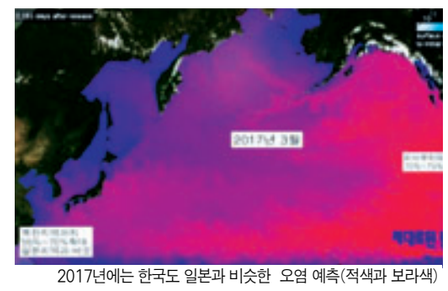
체르노빌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일본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다. 방사능의 영향과 관련하여 빼놓을수 없는 것이 바로 코피흘리기이다. 아마도 이것은 방사능 피폭의 바로미터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방사능 피폭의 영향이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가장 흔히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이다. 피부에 홍반이 나타나거나 백반이 나타나기도 한다. 머리카락이 대량으로 빠지기도 하고 눈의 시력이 급격히 약화된다. 입안이 쉽게 헐고 잇몸이 부풀어 오른다. 근육통이나 관절계통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조금만 일해도 금방 지친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천근만근이어서 삶에 대한 의욕이 급격히 상실된다.



후쿠시마사고 . 1년 후 방사능 오염상태 오염도 적색>보라색>하늘색>흰색



2015년 남북한50%오염. 흰색과 하늘 색은 저농도 오염상태



2017년에는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오염 예측(적색과 보라색)

후쿠시마현 소재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멀쩡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점차 드문 현상이다. 의사들도 쉬쉬하고 정부도 쉬쉬한다. 한국도 월성원전 주변의 마을 주민들은 집집마다 암환자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원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 월성이든 고리든 한번 사고가 발생한다면 서울 의정부까지 고농도 방사능 오염지대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에서 이미 입증된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나는 우리 승리제단의 성도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감로가 방사능을 제거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지도와 같이 한국의 바다가 오염되고 수입식품들로 부터 우리도 안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먹는 것에 들어있는 방사능은 아무리 낮아도 기준치가 의미 없기 때문에 내부 피폭을 외부 피폭과 비교하면 안된다고 한다. 기준치 이하 미량이라도 먹으면 100만 배가 되고 세슘은 반감기가 34년이나 되기 때문에 34년 후에나 증식된 방사능이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체르노빌 환자들 90퍼센트가 음식을 통한 내부 피폭이었다고 한다.

방사능을 제거하는 물질이 있는가

가브리엘 박사는 '의식하는 식습관'에서 클로로필을 함유하는 식품은 예로부터 방사능을 예방하는 식품이라고 말했다. 시카고 미육군 영양분야의 권위자의 말에 의하면 클로로필을 함유한 음식은 방사능을 50%정도 없애준다고 한다. 클로로필을 함유하는 식품은 **양배추, 케일, 녹색 보리잎,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시금치와 같은 푸른 색 야채**를 들 수가 있다.

서강대의 이덕환 교수는 "놀라운 화학 지식을 갖춘 인간은 효모라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알코올로 변환시키는 남다른 기술도 개발했다. 그런 알코올에 아세토박터균을 넣어주면 신맛을 내는 아세트산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우리가 좋아하는 '천연' 술과 식초가 사실은 박테리아가 만들어낸 부산물인 셈이다."라는 내용으로 인류의 놀라운 화학적 지식으로 식초를 탄생시켰다고 감탄했다.

식초는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화학물질이다. 식초는 초산발효과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유일 물질이다. 식초에는 엄청난 능력이 숨겨져 있고 이 능력을 밝혀내기 위해 심층 연구되고 있는 신재생물질이다. 식초 연구로 노벨생리의학상을 3회나 수상한 전력까지 있다. 초산발효과학을 통해 생성된 식초는 슈퍼박테리아까지 멸균시키는 살균력과 구리나 철을 산화시키는 산화력을 가지고 있다.

방사능 오염물질 을 제거하는 식초의 효능

서울대 약대 명예교수인 고 심길순 박사(약학)는 논문 '식초의 체내대사 및 건강'에서 "식초는 인체대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피로회복, 동맥경화와 고혈압의 예방은 물론 방사능 오염물질을 제거하며 소화흡수 촉진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의약품으로 사용되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보고했다.

이중 가장 눈에 뜨이는 대목은 단연 방사능 오염물질 제거이다. 대체적으로 **방사능에 피폭되거나 방사능 오염물질이 체내에 유입되어 세포나 근육에 축적되면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의약품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천연식초의 효능 중에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대단한 의미를 갖는다.

천연식초를 10배로 희석한 물에 육류, 생선, 야채, 과일을 비롯한 모든 식자재를 30분 이상 담근 후에 먹게 되면 방사능물질에 오염되었거나 농약에 오염된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천연식초의 효능을 감안하여 두 가지로 그 방법은 요약된다. 첫째는 피부에 묻은 방사능 물질 제거를 위한 식초목욕을 실천하며 둘째는 천연식초의 체내 대사활동을 통한 방사능 물질 제거를 위해 음용하는 방법이다.

1) 식초 목욕탕

식초물에 30분 동안 담그게 되면 피로는 물론 하고 피부병도 완치된다. 식초목욕의 효과는 대단히 커서 피부에 붙어 있는 모든 물질을 산화시켜 제거하고 원래의 피부 상태로 되돌려 준다.

2) 식초 음료수

세슘이나 요오드에 노출되면 인간의 세포는 유전자 정보를 잃게 되거나 변형된다. 이처럼 돌연변이를 일으킨 세포가 암세포이다.

방사능 동위원소인 세슘과 요오드는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 원소로서 생명체에 대단히 유해한 물질이다. 그러나 식초의 아세트산염과 결합되면 새로운 화합물로 바꿔져 체외로 배출됨으로 제거된다. 음용법도 아주 간단하다. 천연식초 30cc(소주잔 반잔)에 같은 양의 생수를 타서 식후에 마시면 된다. 하루 3회를 마시는 것이다.*

윤금옥 기자